

불자 세상보기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이번 연 말 연 시는 호들갑을 떨지 말고 진득하게 보내자고 내심 작정한 모양인가? 한해를 마감한 날에는 제야의 종소리를 듣는 것을 포기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새해 첫날에도 늘어지게 꾸물거리다가 8시가 넘어서야 이불에서 나왔다.

바로 집 뒤의 산등성에서 첫 해의 떠오름을 보는 이벤트도 무시해 버린 것이다.

이런 나의 행위는 시간이 주는 희망을 포기한 나이 먹은 사람의 자기방어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어 자신이 깨닫게 느껴지기도 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일찍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누가 묻는다면 설명할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아직 시간을 모르겠다. 나는 현대 물리학 등 현대학문을 통해 시간에

대한 지식을 4세기에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잘 모르겠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 의해 절대적이고 직선적으로 간주해 왔던 '시간'이란 존재가 상대적이고 곡선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시간과 공간이 한 단위로 통합되고, 시간의 길이와 속도 등이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우주여행을 하고 오니 사랑하는 어린 딸이 할머니가 되어 있기도 한다.

시간과 인간 삶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인간의 삶은 '시간의 바다' 위에서 항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시간의 바다 위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물결과 파도가 뒤섞여 넘실거리고 있다. 이 시간의 바다를 어떻게 항해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것일 것이다.

시간의 파고를 넘어 항해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의 파도에 밀려 부평초처럼 떠돌 것인가. 그 동안의 나의 삶이 시간에 의해 소비당해 왔지 않았나 하

는 두려움이 든다. 13세기 기계 시대가 발명된 이래 인간은 시간을 인수분해하면서 스스로를 시간의 노예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인간은 시간을 소비한 것이 아니라 시간에 의해 소비당해 오지는 않았는지, 연말 년초의 나의 행위는 이러한 시간에 대한 저항의 몸짓일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지나간 시간에 얼마나 소비당해 왔고, 오지도 않은 미래에 얼마나 우주여행을 하고 오니 사랑하는 어린 딸이 할머니가 되어 있기도 한다.

시간과 인간 삶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인간의 삶은 '시간의 바다' 위에서 항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시간의 바다'는 연기의 장이 펼쳐지는 곳이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엉켜서 다양한 파도의 형상이 넘실대는 곳이다. 그 파도의 형상은 결국은 '무상'이다.

시간의 바다 속에서 연기와 무상을 본다면 우리는 시간의 바다를 멋지게 행복하게 항해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의 바다위에서 연기와 무상을 본다는 것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언어를 가지고 연기와 무상을 이야기하기는 쉽다. 그러나 이것을 시간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체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수행이 나오는 것이다.

시간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지도와 나침반, 그리고 각 종 항해 기술과 도전 정신을 필요로 한다. 지도와 나침반은 연기와 무상의 지혜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방법을 찾는 것이 수행이다. 이 수행은 결국 삼독심(三毒心), 즉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어이쿠, 어려워라. 어찌 이를 넘을 수 있을까. 다만 삼독심에 빠진 자신을 서늘하게 바라보는 것만이라도 실천해 보자. 그러면 시간의 파고에 휩쓸려도 익사하지는 않으리라. 가끔 파고를 타는 서핑을 즐길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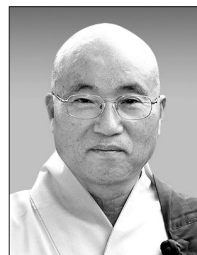
시간의 바다를 항해하는 지혜와 기술은 이미 붓다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구나. 이제야 시간을 좀 알 것 같다. 시간은 연기의 장이고 시간을 넘어 가는 길이 대자유의 길, 니르바나의 길일 것이다.

음력 12월 8일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성도제일이다. 부처님오신날, 출가·열반제일과 함께 불교 4대 명절로 꼽히는 날로 부처님과 같이 정각을 얻기 위해 많은 이들이 정진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행정진의 열기가 다소 식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성도제일의 의미와 과제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발언대

부처님 성도절 의미는

부처님오신날 만큼 성도절 기념하자



법산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남월 8일, 즉 음력 12월 8일은 자비로우신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신 가장 기쁜 날이다. 부처님이 인간 신다르타로 태어나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셨기에 중생들은 비로소 삶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은 삶의 괴로움을 달게 받아들이고 나보다는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삶을 갈무리해 가며 다음 생애 복되게 살 수 있음을 일러주셨다. 또 이 같은 자세로 생을 거둬들여 가면 중생인 우리도 능히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설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절을 맞아 부처님 수행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 함께 바래야 할 일이다.

한국불교에서 최근에는 이런 성도절이 의례적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예전에는 성도절마다 연극과 공연 등이 펼쳐지고 철야정진 또한 각 사찰에서 활발히 진행됐다. 선원에서 선달 초하루부터 성도제일까지 정진하는 전통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정진 사찰도 줄고 있다고 하니 씁쓸하기 그지없다.

또 불교계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은 성대히 기념하지만 출가, 열반일, 성도일은 비교적 조용히 지나간다.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불자로서 부처님 일생 중 하나인 날을 특별히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남방불교 국가에서는 탄생과 출가, 성도, 열반을 모두 한 날로 정해 국가적인 축제를 열기도 한다.

성도절을 맞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정진해가자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해마다 오는 성도절 기간 진실된 마음을 내어 부처님 염원을 나의 염원으로 삼아 실천 수행해보았으면 한다. 삶에 끄달리느라 다소 늦춰졌던 수행의 고삐를 성도절을 기해 단단히 추של려야 한다. 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성도 의미·내용 이해 선행돼야”



이제열 불교경전연구원장

불교는 부처님의 성도로부터 시작된다. 왕자의 신분을 가진 한 인간이 가장 뛰어난 인류의 승승으로 발돋움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위대한 구제자로 올라서게 된 것은 바로 성도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는 성도로 출발했기 때문에 성도제일에는 부처님오신날 못지않은 기념법석이 열려야 한다. 성도제일은 기독교로 말하면 부활절과 같다. 부활 없는 예수가 존재할 수 없듯이 성도 없는 불교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한국불교사회에서는 성도에 대한 의미라거나 과정, 내용들이 잘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성도제일에 불자들은 성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에 앞서 철야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물론 보리수 아래서 정진하며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을 따라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근본적인 성도의 의미를 고찰하지 않는 것은 불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설법을 들으면서 배우게 되는 사성제·삼법인·12연기 등은 이론적인 가르침이다. 하지만 신다르타 태자가 고행을 하고, 정각을 이뤄 부처님이 되는 과정은 사건이자 실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성도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성도한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이해해야 한다.

불교계는 성도의 올바른 의미 확산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는 피상적인 얘기나 일방적인 설법·정진보다 역사적 사실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대대적인 성도주간 또는 성도의 달 선포 등을 통해 성도의 의미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성도와 관련된 세미나와 정진대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부처님 오도송을 보급하는 운동도 필요하다.

社說

출가 진흥 정책, 기대와 우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를 우려할 때 사용되는 말로 '인구 절벽'이라는 용어가 있다. 국가 인구 통계 그래프에서 급격하게 하락을 보이는 구간을 비유한 것이다.

현재 한국불교 역시 '출가 절벽'을 목전에 두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출가자 수는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의 경우 2000년 이후 출가자는 매년 200~300명 수준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제 1년에 200명 출가도 어렵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출가 진흥을 위해 조계종은 지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해 왔다. 2012년 청년출가 학교를 비롯해 출가 사이트 개설, '청소'인 출가, 단기 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정까지 다양했다. 교육원도 올해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고 출가 진흥을 최대 목표로 삼은 듯하다. 첫 사업의 포문으로는 출가

홍보 포스터가 제작·발표됐다. 총 6종이 나왔으며, 전국 사찰과 대학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출가 콘서트와 종립학교 대상 출가 강연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어렵고 고행'이라는 출가의 대중적 이미지를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자구책들이다.

미래세대에게 불교를 친숙하게 다가가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고 장려해야 할 사업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 방편이다. 장기적으로는 계층교과 부활과 발심자를 위한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예비 출가군부터 행자·사미(니)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출가 전담 부서 구성도 필요하고 걱정한다. 걱정만 할 일이 아니다. 이제 제는 머리를 맷방과 동시에 행동과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

조세이탄광 희생자 유골 발굴 촉구를

조세이탄광은 시모노세기 남쪽 61킬로미터 지점 야마구찌현 우베시에 있는 해저탄광이다. 이 곳에서는 1942년 2월 3일 갠도붕괴로 탄광이 수몰되면서 183여명이 모두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 사건의 희생자 가운데 136명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조선인 징용자들이었다. 하지만 희생자들은 오늘날까지도 수몰된 갠도에 수장된 채로 유골조차 수습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세이탄광은 '조선탄광'을 일본인이 부르던 호칭으로 채탄 광부의 대부분이 조선인 징용자들이었기에 붙은 명칭이다.

이 모임은 지속적인 연구조사로 희생자 유가족들을 찾아내고, 추모비 건립을 위한 상금모금 및 사고현장서 유가족들과 1993년부터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벌써 24년째다.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고, 하루 12시간씩 2교대의 높은 노동 강도 등 최악의 노동 조건으로 유명한 일본인 광부들조차 의면하던 장소다. 조선인들의 다수는 독신의 젊은 남성으로 3.6m 높이의 울타리로 둘러싼 속소에 감금돼 채탄작업에 투

입했다. 이 아픈 역사가 세상밖으로 드러난 것은 故 야마구치 다케노부 우베이고 교사가 1976년 탄광 사고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다. 이후 1991년 일본시민단체인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 결성됐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혜열 인쇄인: 배성환
(우)03150 서울특별시 중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www.hyunbul.com
www.hyunbulnews.com
www.hyunbulshop.com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 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판'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용,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사주팔자)이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빛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꿔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팔기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를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이동)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